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외모보다 본질

내가 자주 가는 설렁탕집이 있다. 그 집은 24시간 사골을 푹 고아 탕을 끓인다. 그러니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뚝배기에 나오는 설렁탕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다. 자고로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사람도 외모보다 맛이 좋아야 한다. 본질이 좋아야 한다는 뜻이다. 어른들이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맞다. 얼굴보다 마음의 풍미가 풍기는 사람이 좋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갔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울의 왕위를 이을 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새에게는 여덟 아들이 있었다. 먼저 맡아 들인 엘리압, 누가 봐도 왕위를 이을 만큼 외모가 준수했다.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 중심을 보느니라”(삼상16:7). 말씀인즉 외모나 외향을 보지 말고 중심, 곧 본질을 보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쑥 아들인 다윗에게 마음을 두셨다. 그러나 아버지인 이새는 다윗은 아예 제쳐둔 상태라 그런 중요한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양이나 돌보고 시나 짓고 수급이나 타는 다윗은 왕이 될 재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본질, 곧 그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 학력이나 재력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지 않고 그의 속을 본다. 속을 어떻게 볼까?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 본질이 보인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그가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보인다. 먹어보면 맛을 아는 거니까.

‘빛 좋은 개살구’도 있고, ‘속 빈 강정’도 있다. 지갑은 명품인데 돈은 없을 수 있고, 쌍권총에 총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포장만 보지 말고 내용물을 보라. 외향만 보고 혹하지 말고, 꼭 맛을 보고 평가하라. 결혼을 하든, 동업을 하든 간에.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연말연시를 거치며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미증유(未曾有)의 사건들을 보고 있자면 해방 이후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온 모든 노력들이, 우리 공동체가 이룩한 마지노선들이 유린당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도전받고, 이를 지켜야 할 언론, 사법 시스템이 무시되거나 폭력에 짓밟히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대화와 설득, 관용의 미덕은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눈앞의 모든 일들이 불확실성에 빠져있고,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을

기도한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혼돈 없이 질서가 확립되어 자유와 평화를 노래할 수 있게 합심기도 합시다.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나 나라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내 목회 40년의 경험입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 합심기도 합시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주셔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멕시코에서
봉우 이초석 목사”

이 메시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엄은 해제되었고, 이후 많은 난관은 겪고

회적으로도 서울성전건축을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나라가 있어야 이 모든 일들도 가능함을 목사님으로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지 않은가. 이 기회에 우리 교단 전체가 12차에 걸친 평화통일 기도성회의 횃불을 더욱 높이 들고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자.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자.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 수많은 우여곡절과 만단의 아픔이 있었지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질곡의 역사



노랑진교육관 대성전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

때, 우리 믿는 자들부터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목사님은 처음 계엄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멕시코 집회를 마치고 멕시코 공항에서 귀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 걱정하고 동요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역자 및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곳 멕시코에서 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10월 9일 서울시청광장에 모여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앞날을 위해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을 믿고 기다려봅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화뇌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있지만 모든 일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한 결과다. 우리가 기도했기에 전쟁을 막았고, 심각한 국가적 위기도 잘 극복해가리라 믿는다. 이시대 목사님 말씀처럼,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멕시코 집회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12월 산상집회를 진행한 것이나 새해 들어 노랑진교육관을 대보수하여 새벽기도회 및 저녁기도회를 연일 진행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축복을 받자’는 새해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약속임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각자 소원하는 바가 있고, 교

를 넓고 넓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고, 세계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며 우리의 선택을 응원하고 있지 않은가. 이 위기를 반드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반드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나라로 만들어갈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재물을 좇아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를 회개하고, 법과 정의가 올바르게 서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살고 함께 성장해가는, 그리하여 전 세계가 모범으로 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 일에 우리 교단이 앞장서서 기도에 매진하자.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2025학년도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전기 신입생 모집
원서마감: 2025년 2월 16일(주일),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욥33:14~17)



멸망치 않으려면 계시를 무시하지 말라

저는 2024년 크리스마스 예배 때 ‘꿈의 계시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날에 다소 생뚱맞은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요?” 하고 여쭙는데,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에서, 병에서, 가난에서 구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꿈으로, 이상으로 계시를 주셔서 지키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바람에 다시 죄와 병과 가난과 저주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니 답답하셔서 저에게 ‘제발 좀 전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식들 잘되라고,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그쪽으로 가지 마라’고 말하지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깐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걸 잔소리로 여기고 안 듣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나’ 하면서 안 듣습니다.

계시를 무시하는 자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끼니까 잘못될까 봐, 잘못 같을까 봐, 잘못 행동할까 봐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해, 혹은 꿈으로, 이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죄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니라”(욥33:15~18).

그런데 안 듣습니다. ‘개꿈이야~, 꿈은 반대래~~’, 이러면서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결국 혼쭐이 나고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맞고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지요. 그러나 현명한 자는 맞기 전에 깨닫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할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시73:20).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꿈으로, 혹은 이상 중에, 때론 선지자를 통해 듣고 받은 계시를 심비에 새기고 그대로 행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의로운 사람 요셉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를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 약혼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개방된 현대에도 조금 사귀기만 하다가 헤어지자 했다고 살인도 불사하는데, 그 당시에 조용히 관계를 끊어내려던 요셉의 행위는 정말 의롭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며 그는 구원자임이라”(마1:20~21). 이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인 요셉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데려와 해산



총회장 이초석 목사

할 때 까지 동침치 않았습다. 또 아기 예수 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고, 헤롯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헤롯에게 가지 않은 것도 꿈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마2:12). 만일 요셉이 그 꿈을 무시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동방박사가 무시하고 헤롯에게 가서 예수가 거한 곳을 알려줬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차질을 빚지는 않았을 터이나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는 남의 아내이니 손대지 말라 더욱이 선지자의 아내이니 손대지 말라. 그러면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 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것이다.” 꿈을 깬 아비멜렉은 번민하다가 사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많은 예물도 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습니다. 만일 아비멜렉이 사라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꿈을 무시했다면 어떤 꼴이 났을까요? 그는 물론 그의 가족과 나라에 줄초상이 났을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리 기도원의 초대 원장 송태찬 장로님도 6·25가 터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꿈에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셔서 이유도 모른 채 부랴부랴 짐을 싸서 남쪽으로 내려왔더니 바로 전쟁이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꿈을 무시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리고 꿈에 ‘공케(供饋)’라고 말 씀

하 셴 다 는 데, 훗날 기도원에서 많은 성도들을 대 접하는 직책을 맡아 섬 기는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한 자들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을 다니엘이 해몽해줍니다. 땅의 중앙에 고가 높은 나무 한 그루가 있어 그 아래 들짐승과 새들이 깃들었는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헤쳐서 들짐승과 새들이 떠나게 하고 간신히 그루터기만 남겨두라고 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계시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곱 해 동안이나 동물처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한 대가입니다. 빌라도도 아내의 꿈을 무시해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마27:19)?

제가 40년 동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일기장에 그대로 다 적혀 있는데, 처음에 수를 알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던 중,

목사님의 핍박이 왔을 때 꿈에 골프를 치는데 공이 잘 안 맞자 신발을 바꿔 신으라고 하신 일, 어느 목사님과 잠을 자는데 바람이 불어 얼마나 춥던지 그 목사를 쫓지 않고, 대신 같이 잠을 잘 때 포근했던 목사님의 노선을 쫓았던 일, 고속터미널 옆에 본부 건물을 좋은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나 꿈에 당시 건물주가 감옥에서 나오고 제가 대신 들어가는 꿈을 꾴서 포기했던 일, 베트남 집회를 가려다가 주최 측이 정부요원과 거래하는 것을 꿈에 보고 취소한 일, 올림픽공원에 들어간 일, 좋은 집이 있어 이사하려고 했는데 내가 죽는 꿈을 측근들이 꾸는 바람에 계약을 취소한 일 등,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기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에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제게 경고하셨습니다. ‘남이 싸놓은 뽕에 주저앉지 마라.’ 교회 문을 닫자 몇몇 성도들이 ‘왜 믿음이 없냐?’며 따지는 통에 제가 마음에 고통을 받았을 때 주신 꿈입니다. 이 꿈을 꾸고 저는 지체하지 않고 온라인예배로 대체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신천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만일 이 꿈을 무시했다면 우리도 뉴스에 오르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 줄 압니까? 경고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당신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꿈은 바로 이뤄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요셉에게 벧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과 해와 달이 자기에서 절하는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주셨지만, 바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흘러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꿈도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필요로 했지 않습니까?

매 맞기 전에 깨닫는 것이 복이다

당신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도 중에 자동차 사고 나는 것을 꿈으로 보이셨건만 이것을 무시하다 먼저 천국 간 사람이 있고, 동업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다가 폭삭 망한 뒤 뒤늦게 깨달은 자도 있으며, 배경과 학벌이 좋다고 꿈을 무시하고 결혼했다가 몇 년 만에 친정행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답을 보고도 오답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계시를 무시하다가 멸망하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축복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시를 귀를 기울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내 선택이 결과를 좌우한다

1867년 미국 존슨 대통령이 슈어트 국방 장관과 계획해서 얻어붙은 땅 알래스카를 러시아에서 720만 달러에 샀다. 이에 전 미국 국민과 상, 하원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고, 이 일로 대통령의 인기는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대통령의 주도하에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 그 얼음 덩어리 땅을 탐사했으며, 그곳에 엄청난 지하자원과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때문에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러시아는 알래스카 땅을 팔았기에 결과적으로는 오늘의 초라한 거인 나라가 되었고, 힘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만일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팔지 않았으면 러시아가 미국의 코앞에 군사기지를 세워 미국을 위협하고 세계를 위협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선택을 잘못함으로 망할 수도 있고, 선택을 잘하므로 흥할 수도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택하고 더 나아가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는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였지만, 지도자들과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잘살아 보자’라는 구호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성장했다.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가서 고통을 받으며 외화를 벌어들여, 젊은 청년들은 베트남에 군인으로 파병되어 나라를 일으키고, 또 우리의 아버지들은 열사의 땅 중동

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일으켰다. 대한민국은 잘살아 보겠다는 선택을 했고 희생을 선택했다. 그리고 가장 잘한 선택은 하나님을 택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며 외치고 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이 아름다운 나라가 된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은 어제 우리 선택의 결과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한 문둥이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대로 문둥이로 살 것이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 예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을 것이냐’라는 선택의 상황에서 전자를 택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인천 교회에 박정미 권사라는 분이 있다. 그는 어느 날 자궁에서 혈류가 흘러 병원에 가니 온몸에 암이 전이되어서 가망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총회장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작년에 ‘서울시청광장 평화통일 집회’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회와 ‘호주집회’를 위한 21일 작정 기도회에 힘든 몸을 이끌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나와 기도를 선택했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깨끗함 받는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2025년도 교단 표어가 ‘우리,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보자!’이다. 이 표어가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 기도를 선택하여 전대미문의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보자.

장영국 목사

:: 신앙논객 ::

소탐대실(小貪大失)

원숭이를 잡는 법, 입구가 좁은 호리병 모양의 항아리 안에 바나나를 넣어두면 원숭이는 빈손을 집어넣어 항아리 속 바나나를 움켜쥔다. 이때 사람이 원숭이를 잡으러 나오면 원숭이는 바나나를 움켜쥔 손이 항아리에 끼인 채로 잡혀간다는 것이다. 바나나를 먹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순간에도 그 바나나를 놓지 못하는 원숭이의 모습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성경 말씀(약1:15)을 떠오르게 한다. 대학부는 매해 1월이면 조직을 개편하고 줄임 과송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청년들의 새로운 한 해 동안의 계획이나 진로 등을 상담하다 보면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 2~30대 청년 시절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많겠는가! 그러다 보니 한정된 시간을 잘 배분해서 신앙과 삶, 삶과 신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청년들에게는 중요한 과제다. 물론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상황에 맞게 상담해주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안타까운 순간도 있다. 어떤 원대한 꿈이나 목표를 이

루기 위해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닌, 단지 눈앞의 이익이나 쾌락이나 여유를 위해 신앙의 끈을 느슨하게 하거나 아예 놓으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담당 교역자로서 왜 그들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거나 말리지 않느냐고? 사실 대개 그럴 때는 이미 머릿속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어서, 교역자의 말을 듣고 순종할 틈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바쁘고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섬길 영혼들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들여 헌신을 자원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단지 시급 좀 더 주고 편한 아르바이트 때문에, 서로 좋아죽는 이성친구 때문에, 학교와 직장 내 자신의 평판 때문에, 여행이나 레저 스포츠 등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 때문에 신앙에 타협하는 청년들도 많다. 그들은 아무리 말씀으로 교훈하고 타이러도 자신이 손에 움켜쥔 바나나를 놓지 않는다. 온 전하를 얻더라도 자기 목숨보다,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마16:26). 눈앞의 바나나 때문에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말자.

신혁주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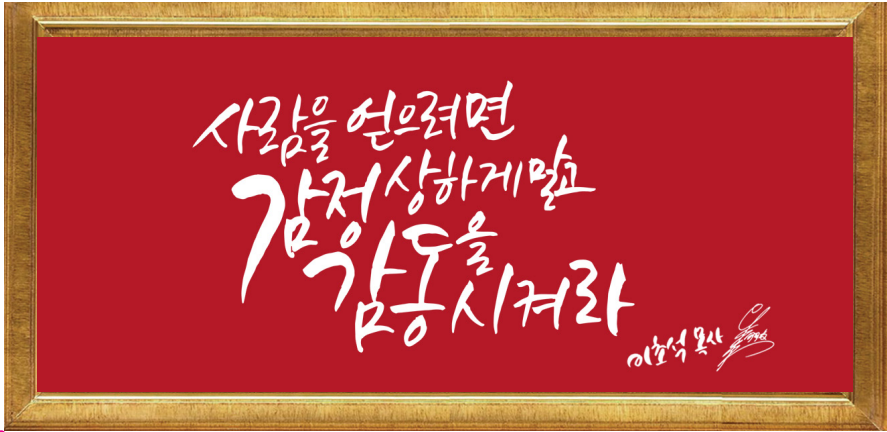
:: 찬양과 경배 ::

사랑도 능력이다

최근 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할 글을 쓰는 작업을 했다. 이번 주제는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 속 예수님은 당신을 증명하는 일을 반복하셨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당신을 통해야 만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끊임없이 선포하시며, 일곱 번이나 표적을 보이셨지만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늘 오해와 불신으로 배척했다. 그럼에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려 스스로 죽음까지 결정하신 이유는 오직 ‘사랑’이었다. 하나님은 이미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었던 첫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지만, 또 다시 사랑하셨다.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사랑’이기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작정 ‘내 목숨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다. 맑은 날과 흐린 날이 있듯이 내 마

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가다가도 감정을 소화 시키느라 애쓰는 때도 있다. 그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도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의 일이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은 능력의 일이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사랑에도 적용하면 되는 것이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셨듯, 나의 사역도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넉넉하게 해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다. 이제는 어떤 능력보다 사랑의 능력을 받는 종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께 드리는 보답이자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로 나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이다.

김혜리 교육전도사



:: 생명의 말씀 ::

그리고 그다음에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잠시 후 승무원이 승객의 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표를 호주머니에서 찾고 찾았지만 표를 찾을 수 없었다. 그 승무원이 “아인슈타인 박사님, 저는 당신을 잘 압니다. 속이고 타실 분이 아니니 제가 받은 줄 알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승무원이 검표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다 아인슈타인을 보니 아직까지 표를 찾고 있었다. 검표원이 “표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자 아인슈타인이 “그게 아닙니다. 표에 내가 내릴 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어느 역에서 내리는지 알 수가 없어 표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기차를 타기는 댔는데 어느 역에 내리는지 알지 못하면 큰일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며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올랐다고 등정에 성공한 것이 아니다. 무사히 하산해야 성공이라 말할 수 있다.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국회의원이다, 회장이다, 판검사네, 의사네, 목사요, 장로요, 뭐 이런

것이 성공이 아니다. 정상에 올랐다가 하산하지 못하면 실종일 뿐이다, 실종! 곧 무엇이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것이 성공이란 말이다. 바울 사도는 “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빌3:14)고 했다. 삶의 땀대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생활 전체를 이끌어가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냥 사는 것인가? 먹고 자고 의미 없이 살다 죽는 것인가?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나의 삶에 목표를 두고 뛰어야 나중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 것이다. 로마대학 정문에 하나의 비석이 있는데 거기엔 매우 의미심장한 비문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리고 그다음에는”(And then after then. And then after then. And then after then.), 부자가 되고 그다음에는? 의사, 판검사, 소위 성공자가 되고 그다음에는…. 영혼의 때를 땀대로 세우는 자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할 것이다.

임택함 목사

∴ 일본에서 온 편지 ∴

∴ 참된 깨달음 ∴

삶의 흔적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6:10)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의 과거가 만들어놓은 습관이 현재를 보여주며, 그 현재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좋은 신앙은 좋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다니엘의 기도 습관은 생명이 위협받는 환경에도 그의 신앙을 지켜주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땅이지만, 한 걸음 내디디면 길이 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거룩한 습관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인생은 시작과 끝, 출생과 죽음이 있는 존재인기에 우리는 또 새해를 맞으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자신이 쇠하여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쇠하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새로워야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감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간 그 자리에 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그대로 남습니 다. 그 사람의 뒷모습입니다. 모세는 가나 안을 목전에 두고 이 세상을 떠났지만 모 세가 어떻게 죽었으며 어디에 묻혔는지 아 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의 아름 다운 뒷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앞모 습은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뒷모 습은 지금의 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혹시 나는 뒷모습보다 앞모습에 더 신경
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범죄자는 사건 현장에 반드시 흔적과 단서, 증거를 남긴다는 의미의 말이며, 스마트폰 역시 검색한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깁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 자신이 일평생 접촉한 총집합의 결과입니다. 나 자신을 포렌식 하면 어떤 흔적이 나타날까요? 그리스도 인인 우리에게 어떤 흔적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도 나의 삶에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주님, 그리고 항상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올해를 살아가십시다.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아침 QT 때 마태복음 14장(물 위를 걷는 베드로)을 묵상했습니다. 말씀 중 ‘제 자들과 베드로’ 대신 제 이름을 넣어서 읽었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듯한 생생함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이름을 넣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 (___이)를 배에 태워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___이)가 탄 배는 새벽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서 (___이)에게 오셨습니다. (___이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자, (___이)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___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지만, 곧바로 강한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___이)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___이)를 붙잡아 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 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닥치면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풍랑의 어려움에서는 물 위를 걸어서 우리를 구하러 달려오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손을 내밀어 도와주십니다. 2025년은 기도를 통해 전대미문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리라 다짐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송명국 집사
songmkook@naver.com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Good News

미국에서 뒤늦게 대형 피자 체인점 사업에 뛰어든 기업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축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였지만 이미 먼저 시작한 두 업체가 미국 전역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한 업체는 다양한 메뉴와 토핑으로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승부를 걸었고,

또 다른 업체는 주문한 지 30분 만에 피자가 도착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광고하며 빠른 배송 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후발 업체로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시간 연구 끝에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소스를 더 많이 넣어 피자 본연의 맛을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메뉴도 없고, 빠른 배송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먼저 시작한 두 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맛’이라는 본질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며,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봉사단체도 아니고, 사교를 위한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 본연의 목적은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은 뒤에 영생복락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인생의 모든 수고의 짐까지 벗겨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심화평 목사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에벤에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참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두려움이 많은 저를 하나님은 늘 따듯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무서운 음성 대신 자상하고 인자한 말로 위로해주셨습니다. 자녀가 아프고 힘들면 부모가 더 슬퍼하듯, 힘들고 외로울 땐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통스러워할 때는 ‘자유하라’는 음성으로 묶인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설령 잘못을 하더라도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참된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훈계하며 바로 잡아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말씀으로 끊임없이 교
훈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
아 주셨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고 혼내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나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병과 가난과 저주로 고통받으며 살길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제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요일4:18).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저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영혼을 버리지 않는다(행 2:27)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은 정말 큰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과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장래에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전소희